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박성주목사

다같이

인도자

7월의 선교사(조성우)를 위한 기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찬 528)

선한 능력으로

임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히브리서 13:1-2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손대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찬 455)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7월의 선교사는 조성우 선교사(러시아)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오늘 설교는 총회 연금국과 PILP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주 목사님이 합니다.
4. 다음 주일(7/25) 왕 같은 제사장 서약식(졸업식)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 7/24(토)부터 9/4(토)까지 7주간 2021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의 기도로 서포트 받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 예배 후 1시에 친교실에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예배 후 나가실 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조 - 김유진)
8.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지난 수요일(7/14) 예배당 건축 현장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덕규 설계사, Nassau County Building Department 관계자, Carle Place Water District 관계자, QRS 현장소장과 우리 교회 측에서는 건축위원회 김희석 위원장, 박창완 간사가 참석을 해서, 예배당 건축 현장 앞 도로와 인도로 공사 진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Carle Place Water District는 교회가 고용한 Plumber와 작업 일정을 정해 소화전 이전과 Water Main Service를 포함한 전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봇대 이전 작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그것은 추후 따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sidewalk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Water Main Service, 소화전 이전과 Sidewalk 포장이 마무리 되면 Nassau County Building Dept.는 Temporary CO를 교회에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Temporary CO가 나오면 우리는 예배당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당 사용 허가(준공 검사 완료)가 속히 나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코비드19에 대한 경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사용을 지속하고 있고, 예배 참석 인원 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배당은 여전히 주일예배 참석2부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예배당에 가면 2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았습다. 주일성수에 대한 생각도 열어지고, 주일예배를 격주로 참석하는 분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기도 하였고, 아직도 현장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입당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